

월요광장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최근 광주시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의 기본 원칙을 이 선언에 담겠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는 지난날의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초래된 획일적인 경관과 자동차 위주의 거리로 덮여 있다. 따라서 환경 훼손과 오염이나 이웃과의 단절,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짓던 방식을 반성하고,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광주시 총괄 건축가와 공공 건축가 그리고 선언문 재정 협의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되

었다고 한다.

1개 전문, 10개 조문으로 이뤄진 '광주 도시·건축 선언'에는 광주가 가진 역사·자연·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광주 도시·건축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에는 새롭게 열리는 광주의 도시·건축은 삶의 여유와 활력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와 생산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광주 도시·건축 선언의 정신을 표현했다. 조문에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와 미래, 경관과 조망, 지구와 도시, 녹지와 공원, 안전과 공존, 마을과 공동체, 공공시설과 공공건축, 공동주택과 주거 기반시설, 집과 건축, 공공성과 도시행정 등 세부 가치 10개를 담았다.

조문의 내용을 보면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존중, 자연경관 보존, 보행 친화적 녹색교통의 추구, 네트워크 구성된 녹지와 공원을 통해 접근성 강화, 안전과 공존을 통해 안전한 도시와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도시,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 참여와 소통의 공공건축, 열린 도시 구조,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 공간, 공공성과 절차의 정교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광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약속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언 이후 광주시는 도시·건축 선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도시 기본 원칙을 실현해 나간다고 한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민선7기 초부터 강조해 온 '개발을 하면서도 공간적으로 광주다움을 잃지 않는 도시 개발 철학'이 절실한 시점에 적절한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과 가이드라인이 광주시의 건축·재생·도시정비 등 각각의 행정 주체들 간 소통이 없이는 그저 말뿐인 선언과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의 행정 주체들 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계획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또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이 시행하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공건축 사업 등에 도시 건축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에 앞서 공기업이 먼저 시범적으로 양도하도록 도입함으로써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대규모 개

발 사업과 재생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과 여건 변화에 맞춰 우리 지역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범지역적·범도시적 측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광주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광주시·전남도 통합, 민간공항 이전과 2차공공기관 이전 등이 그것이다. 민감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위해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은 과거에는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합의, 국가의 시책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세계적으로 삶의 질 순위가 높은 도시들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차량에서 보행으로, 개발에서 재생으로, 성장에서 지속으로, 양에서 질로, 도시·건축의 통틀을 바꾸어 가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의 광주가 변화는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더욱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기고

산학 협력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주도한다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전라남도는 서남권에 조선 업종, 동남권은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이 편중되어 있고, 인구 감소 및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로 대학들의 우수 신입생 모집과 청년들의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연이어 '지역 균형 뉴딜' 발표에 대해 지역 대학으로서 적극 환영하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지역에 있는 목포대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최고 국립대' 비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해상풍력 중심 신재생 에너지 인재 양성 사업(3년간 168억 원)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교내 중형 풍력 발전 시스템(225KW) 구축과 국제 인증 해상 풍력 교육 등 다년간의 해상풍력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 사업에 많은 노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 주도형 전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을 수립 중입니다.

목포대는 전라남도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인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셋째로 우리 대학은 전남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망 구축 및 대규모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106억 원,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37억 원 등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들

째, 대규모 해상풍력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인증 교육, 해상풍력 계약관리와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목표대는 2020년 9월 해상풍력 세계 1위 덴마크 오스테드 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은 지역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업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어업 피해 조사 등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목포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해상풍력 기업 협업센터(ICC)'를 신설하여 산학 공동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수용성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목포 신항만 배후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의 해상풍력 핵심 부품 기업 및 협력 기업 유치, 해상풍력 연관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상호 협력하여 전남에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목포대가 지역 사회 산학협력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기고

서남권의 미래와 문화 역량



이현진 경영학 박사·전 목포시청 국장

최근 코로나 덕택에 색다른 문화 체험을 하며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지인으로 부터 값진 문화 콘텐츠를 선물받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오는 심리적 고립을 피하고 느슨해진 감성을 추슬러 보라며 뉴욕 필하모닉의 '아리랑' 공연과 미국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 공연 실황 등 2개의 음원을 보냈다. 장엄함이 묻어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의해 우리 민족의 숨결이 밴 '아리랑' 선율이 연주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 벅찬 감회를 느꼈다. 또한 세계 3대 음악 축제라는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 공연도 보았는데 열기나 규모가 실로 대단했다. 금

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공연 실황을 보았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실내와 공연과 재즈, 그리고 무명 뮤지션부터 세계 톱클래스 스타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구분 없이 100개 이상의 공연장에서 50개국 2500여 팀들이 열띤 공연을 펼친다.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최신 트렌드 콘퍼런스와 마케팅 행사도 병행해서 열린다. 부스 판매 등 부대 수입만 수백 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K-팝 가수들도 여기에 참여하여 세계적인 음악인들과 당당하게 가락을 겨루었는데 경쾌한 리듬과 신나는 댄스 퍼포먼스가 조화된 수준 높은 공연 내용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스러움과 함께 한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능할 수 있었다. 좋은 공연을 온라인으로 보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공유할 만큼 세상이 가깝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난데없는 외국 축제 이야기를 왜 끄집

어 내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 상품이 가진 매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고 싶어서다. 유튜브에 기 반을 둔 '방탄소년단과 K-팝'의 전 세계적 열풍은 문화 콘텐츠와 커뮤니티션 기술이 결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지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곧 예 향의 도시이자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라고 자부하는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문화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하며 문화적인 삶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에는 문화가 산업이나 관광과도 결합되면서 부가 가치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문화 기술(Culture Technology)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기술로 각광받고 있고 문화 콘텐츠 산업은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행사가 아직 우리에게 먼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될 장기적인 과제라 여기고 지금부

터 준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은 문화·공연 산업을 결합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열풍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 행정 당국이 주체가 되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 지금부터 차분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돼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생한 삶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자료, 그리고 5G시대를 맞아 디지털·빅 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관광 추세를 선도하는 내용들이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청사진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적 욕구가 분출하는 21세기, 이제부터는 문화를 배움목으로 삼아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社說

호남고속철 돈 때문에 결국 '자갈 철길' 되나

호남고속철도 선로의 지반 침하가 심각해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추가로 건설되는 2단계 구간의 궤도가 안전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대신 '자갈'로 설계될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잇그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지반공학회의 '호남고속철도 노반 안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성토 구간 55.6km 가운데 22.5% (12.5km)에서 허용 침하량(30mm)을 초과해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침하량은 46.7mm이고, 최대 침하량은 140mm에 달했다.

특히 타남·교량 55개(40.18km)에서도 허용량을 넘는 침하가 진행 중인데 가장 심한 구간은 112mm나 기라앉았다. 더 큰 문제는 노반 복원 방법과 범위에 대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 간 이견으로 하자 보수조차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화재 진압 한계' 고층아파트 주민 불안하다

이달 초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르고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치기도 했던 울산 화재를 목격한 누리꾼들은 '마치 나무 목재에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타오르더라'라며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이날 불길은 건물의 외벽을 타고 빠르게 올라가면서 화재를 더욱 키웠다.

광주서부소방서가 최근 서구 광천동 호반써밋플레시스(48층) 앞에서 실시한 '고층 건물 현장 적응 훈련' 역시 울산 화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다목적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물탱크 등 소방 차량 4대와 17명의 인원을 투입해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훈련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소방 장비 부족 등 화재 진

압 능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소방대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가 소방호스로 물줄기를 쏘아 올렸으나 물줄기는 48층 건물의 중간쯤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고가사다리차(46m)가 사다리를 최대한 쭉 뻗어 뿔어낸 물줄기도 건물 중간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현재 광주 소방 당국이 보유한 고가사다리차로는 50m 정도인 20층 정도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도 확인됐는데 광주·전남 지역에는 초고층 화재에 필수적인 70m급 굴절사다리차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결국 초고층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장비가 여의치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국은 고가사다리차를 조속히 확보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단계 구간의 경우 사업비 제한 문제를 적극 해결, 반드시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존 F. 케네디 미국 35대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암살된 이후 워싱턴에서 진행된 나흘간의 국장(國葬)은 당시 미국 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재건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대 최고의 신화종교학자이자 비교신화학자로 당시 국장을 지켜봤던 조지프 캠벨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그때뿐이었다"고 회고했다.

캠벨은 "대통령의 암살로 미국 국민 모두가 충격적인 상실을 겪

광장의 몰락

었다"며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이 무엇이든 대통령을 추모하는 내용과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생한 삶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자료, 그리고 5G시대를 맞아 디지털·빅 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관광 추세를 선도하는 내용들이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청사진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적 욕구가 분출하는 21세기, 이제부터는 문화를 배움목으로 삼아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가치를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정립시켰다. 한때 촛불 혁명의 현상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넘실대던 평화문광장은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의례의 장(場)'이 아닌 '갈등의 현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특정 이념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광장을 사유화·정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 당시 광화문 현장에서 느꼈던 몽롱한 감동과 부풀어 오르던 희망을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광장의 몰락이 아쉽기만 하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